

## 서로 부등켜안고 울었다

정 숙 희(헬레나)

(강남성모병원 자원봉사자)

39세인 최씨는 7년 전(1985년 5월) 유방에 종양이 있음을 진단받고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 검사 결과 처음엔 양성이었으나 후에 악성으로 진단되었다고 한다. 1987년 5월 재발, 위로 전이되어 입원하고 있었다. 최씨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다른 환자들보다 자신의 병이 위중한 것으로 여기고 노여워했으나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다음 방문을 허락했다.

최씨의 남편은 교사였고 적은 월급으로나마 알뜰하게 살았으나 기나긴 투병 생활로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생활이 힘들다고 하였다. 게다가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 마음 고생이 여간 아니었으며, 남편과 아이들이 자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괴로워했다. 그러나 삶도 죽음도 모두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꼭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개신교 신자였다.

첫번째 방문 때였다.

“안녕하세요? 자원 봉사자인데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도와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뭐 죽을 병이라도 들었어요? 왜 나만 찾아와요!”

최씨는 큰 소리로 화를 냈다.

“아니에요. 제가 방문한 것이 싫으시면 앞으로는 오지 않을게요. 자매님 집주소를 보니 우리 집에서 가깝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애들도 어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싫은 것은 아니고……”

최씨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말끝을 흐린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나는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다.

며칠 후, 다시 찾았을 때 최씨는 반가이 맞았으나 병원에만 오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남편이 수산 시장에서 멍게를 사다주어 맛있게 먹었다고 은근히 남편 사랑을 하며 만족해 하였다.

네 번째 방문 때였다. 최씨는 식사중이었다.

“하도 밥맛이 없고 칼칼한 것이 좀 먹고 싶어 옆 침대에서 오이지를 얻었는데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올 때는 오이지를 맛있게 담가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최씨의 지나날 얘기들을 들었다.

“집이 어디쯤이에요? 살림하기도 바쁠 텐데 자주 와 주셔서 고마워요.”

집주소를 알려 주고 최씨의 전화 번호를 적어 놓았다. 물수건을 꼭 짜서 얼굴과 등과 팔을 닦아 주고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하느님께 기도드릴까요?”

최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기도를 마치자, 최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최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또 올게요. 조금해 하지 마시고 마음 굳게 가져야 돼요.”

이제 최씨에게서 화를 내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오이지를 정성 들여 담그었다. 알맞게 익힌 다음 썰어 냉장고에 넣었다가 점심 시간에 맞춰 오이지를 갖고 병실에 들어서니 최씨는 마침 식사를 시작하려는 중이었다. 최씨는 기뻐하며 오이지를 반찬해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읽으라고 「고통중에도」라는 작은 책을 손에 쥐어 주고 병실을 나왔다.

최씨 침대에는 간병하는 이가 거이 없고 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밤에는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와서 보살피고, 낮에는 남동생이 잠깐 와 있다가 가곤 했다. 내가 여섯 번째로 병실에 들렀을 때는 어제 수술을 했다며 몹시도 고통스럽게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물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씻어 주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최씨는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고, 배는 고프지만 먹기만 하면 토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시원한 것을 원해서 뭘 먹을 수 있게 해줄까 궁리하면서 한나절을 보냈다.

환자가 좋아할지 어떨지도 모르면서 감주를 조금 만들어 시원하게 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다. 일곱 번째 방문이었다.

최씨는 역시 계속 굶었다며 힘없는 표정으로 반겼다. 감주를 내어 놓으니 눈물까지 글썽인다.

“그렇잖아도 시원한 감주가 먹고 싶어 애들 아빠한테 좀 해오라고 시켰는데……”

최씨가 일어나서 맛있게 감주를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잠시 후 한 컵을 더 마시고도 토하지 않았다. 토하지 않아 신기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환자가 먹고 싶어한 음식을 저에게 알려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방문하니 최씨 남편이 옆에 앉아 있다가 반갑게 맞아 주며 고맙다고 치하한다. 최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긴 시간 동안 살아온 지난 얘기, 고부간의 힘든 얘기, 이제 겨우 살 만하니 병이 나서 이 모양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시어머니 이야기는 듣기가 거북할 정도였으나, 열심히 들어 주니 후련해 하는 것 같았다. 다만 자신이 옳다고 단정하는 데 동조해 줘야 하는 내가 난처했다.

아홉 번째 방문 때 환자는 항암 주사를 맞고 힘없는 얼굴로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다. 기침과 가래 때문에 피로워하며, 며칠 후엔 퇴원할 생각이라고 한다. 가슴이 답답하여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수술한 후 등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등을 좀 쓸어 달라고 한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으므로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고 팔도 주물러 주고 돌아왔다.

최씨가 퇴원을 했다는 전화를 받고 최씨의 집을 방문했다. 최씨는 집에 오니 밥도 잘 먹고, 보고 싶었던 아이들을 보니 살이 찌는 것 같다며 행복한 표정이었다. 칠순의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근심 땀 주름진 얼굴이 안쓰러웠다. 아들 삼형제가 모두 건강해 보였고, 시모가 계시니 집안일을 맡아 해주어 어려움이 덜 한 것 같았다.

열한 번째 방문.

더욱 수척해진 최씨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워 무엇이 먹고 싶느냐고 물었다. 매콤한 김치를 넣고 죽을 좀 끓여 달라고 해서 주방에서 죽을 끓이며 집안 청소도 하고, 할머니도 도와드렸다. 내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최씨를 기쁘게 했다.

최씨는 미국에 사는 동생과 통화하면서 지금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지만 하느님의 뜻만 기다린다는 말과 그러나 꼭 살고 싶다,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무섭고 두려워 피하고만 싶은 죽음이 삶의 연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나 자신의 신앙이 미약하기만 하다는 것을 느꼈다.

최씨가 통증이 심하고 견디기 어렵다고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와 다시 최씨 집을 방문했다. 열두 번째 방문 한 셈이 된다. 시원한 김치죽이 또 먹고 싶다고 해서 조금은 익숙해진 솜씨로 죽을 끓였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물었다니 자기와 심하게 다투고 끝내는 집을 나갔다고 한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여 최씨에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서운하게 해준 것만 생각지 말고 고맙게 해준 것도 생각해야 한다. 바로 지금같이 몸 아플 때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또 앞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누가 보살피겠는가? 그래도 건강한 시어머니의 손길이 지금이 가정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할머니가 오셨는지 궁금해서 방문을 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반가이 맞는다. 최씨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니 고통스러운 표정이다. 양상추와 파셀리가 암환자에게 좋다면 그것을 사다가 생즙을 해달라고 한다. 부지런히 시장을 다녀와 생즙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서로 겹도는 듯한 고부간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호스피스 보살핌에서 가족간의 화해라는 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다.

암에 걸린 나의 시동생의 병세가 위중하여서 그쪽을 돌보느라 최씨 댁을 오랫동안 방문했다. 오나가나 환자만을 대하게 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최씨는, 언니가 없는데 좋은 언니가 생겨서 너무 좋다면서 영원한 언니가 되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웃음짓는 모습이 천진스럽다. 께히 언니가 되어 주기로 동의하며 작은 우리들의 선행이 인간의 마음 속 깊이 간직되어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나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주님께 찬미드리며 봉사자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이 가정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왔다.

최씨는 사랑하는 아이들마저 병든 엄마 옆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서운해 한다. 시어머니와 대화는 전혀 없고 의무적으로 하루 세 번 갖다 주는 죽은 정

말 먹기 싫다고 한다. 육신의 고통도 큰데, 이토록 마음의 고통까지 함께해야 하다니 가없고 애처롭다.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환자가 싫어함으로 늘 조심해야 한다. 환자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일치되어 최선을 다해야 할 지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어려움과 서러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할머니가 빨아 놓은 이불 호청을 껴매서 환자에게 덮어 주고 돌아왔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방문해 보니(17번째 방문), 환자의 상태는 더욱 위중해졌다. 복수가 차고 호흡 곤란이 와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지새워야 하는 건지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런 중에 재입원하게 됐는데 주사를 맞는 도중 호흡 장애를 일으켜 산소 호흡기를 끼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것이다. 몹시 힘들어하는 최씨의 팔을 주무르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돌아왔다.

열여덟 번째 방문을 하였다. 심방 오신 교우들이 방이 가득하여 주방으로 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했더니 반갑게 맞아 주시며 눈물을 글썽인다. 할머니의 노고를 치하하며,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덜 고통스럽게 맞을 수 있을지 기도하며 노력하겠다고 했다. 며느리는 이 세상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해서 며느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연신 우시며, 당선이 죄가 많아서라고 한다.

잠시 후, 교우들이 돌아가 환자 방에 들어갔다.

“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아직 하느님께서 데려갈 시간이 멀었는지 이번 위기에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복수가 차서 통 먹을 수가 없고 대변을 보지 못해서 답답해요.”

그러면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관장을 해서 대변을 보게 해주고 집을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최씨가 한사코 쥐어 준 포장된 선물(화장품)을 들여다보며 최씨의 생명이 얼마나 갈까, 화장품을 쓰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살아 있으면 하고 생각했다.

시동생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온양으로 내려갔다. 쇠진한 시동생의 모습을 보니 최씨의 가여운 얼굴이 떠올랐다. 귀경했다가 다시 온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잠시 최씨에게 들렀다. 배는 더 불러지고 호

흡도 더 곤란해서 전혀 눕지 못하고 앉아서 지새우며 대소변도 받아 내고 있었다. 낮은 의자 위에 이불을 올려놓고 기대어 있는 모습이 가슴 아프다.

‘하느님, 재발 최씨를 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몸인데 앉아서 지새워야 하다니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호스피스과에서 성지 순례를 가는 날 아침, 최씨의 남편이 전화를 했다.

“어제 저녁 우리 집사람이 천국 갔습니다. 그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간 전신에 힘이 쭉 빠졌다. 그의 마지막을 지켜 주고 싶었는데, 무슨 말인가 꼭 하고 싶었는데,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과연 내가 최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고인이 된 최씨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빌었다.

“주여, 이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며느리를 떠나 보낸 시어머니의 슬픔과 후회와 한탄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다.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무척이나 마음 아픈 나날이었으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를 간구한 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에 환자가 크게 소리 내어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다.

“어머니, 나 오늘 천국 가고 싶으니 기도해 주세요.”

“내가 먼저 가야지 왜 젊디젊은 내가 먼저 천국을 가느냐.”

고부간에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했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던가!

마지막 시간에 내가 보고 싶어 전화를 했다는데, 나를 집안일(시동생은 최씨보다 이틀 뒤에 선종)때문에 갈 수 없도록 해놓고 두 분을 화해시킨 하느님의 섭리에 고개가 숙여졌다.

환자가 죽음을 편안히 맞을 수 있도록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린다. 이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의 결과라 여기며 여기서 호스피스의 활동이 중요한 가교 역할이 되게 하신 하느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린다.